

# 크롤링을 통한 전통유래찾기 (문화유적발굴)



# ❖ #목차#

## • 1.배경 및 목적

- 최근의 문화유적을 검색하여 이를 표면화 하고 이를 홍보 및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 • 2.데이터 수집

- 자료검색(지역 각1개씩)
- 시대/유래/역사(흥미 내용)/동영상(QR)
- 위치(시군구)

## • 4.효과

- 전통문화의 계승적 유도
- 전통문화 홍보 지역경제에 기대
- 역사교육의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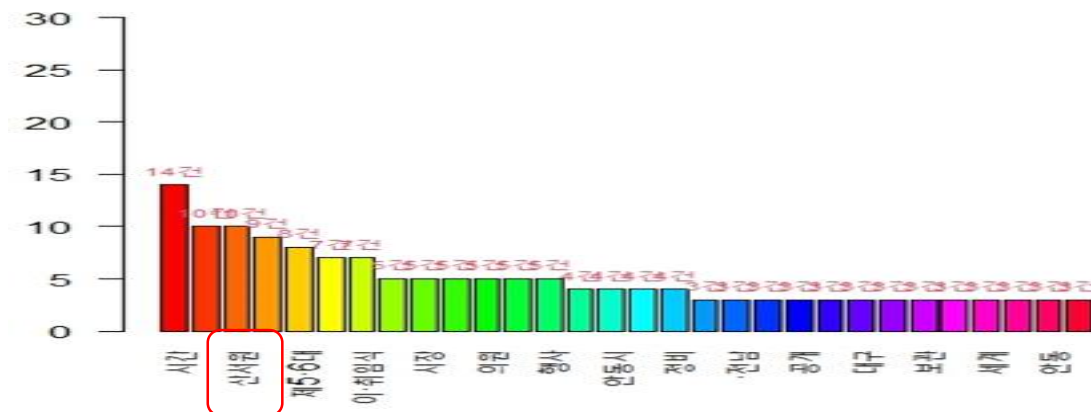
## 3.전통 유래와 문화탐방에대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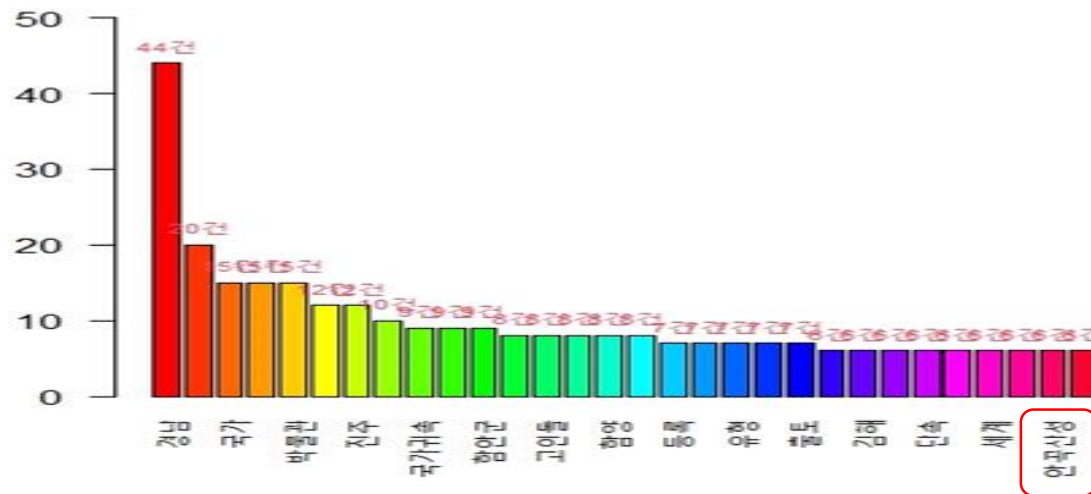
## 예시)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

- 경기도 고양특례시와 서울특별시 지역에 걸쳐 있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탕춘대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올랐다.  
고양시는 조선 왕조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18세기에 축조된 이들 성곽군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합등재를 추진한 지 2년 만에 이런 성과다.  
우선등재목록 선정은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연구진 구성, 등재기준을 충족하는 연구결과, 보존관리계획 등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 서울시와 3개 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세계유산 등재는 길고 지난한 과정인데 3개 지자체가 합심해 좋은 결과를 낳았다"면서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이산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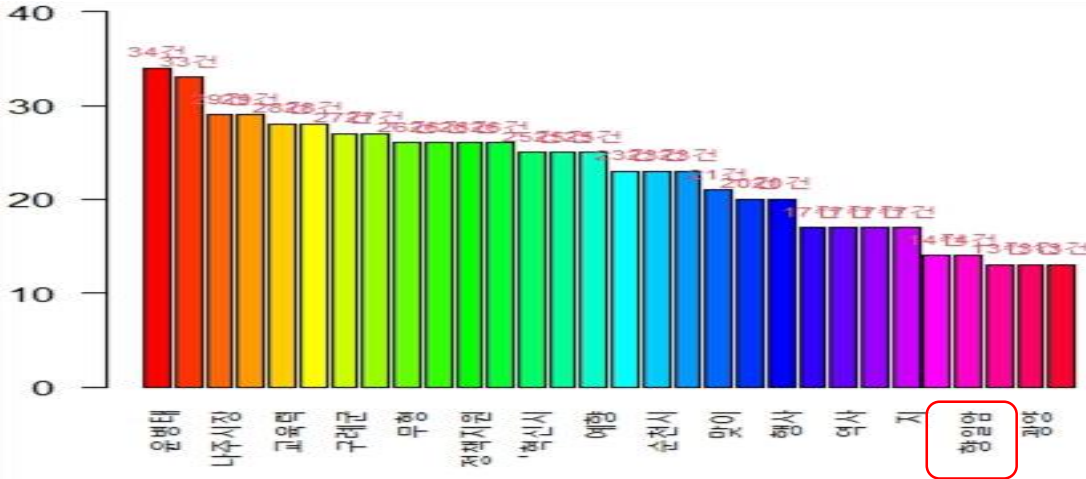
## 경남 안곡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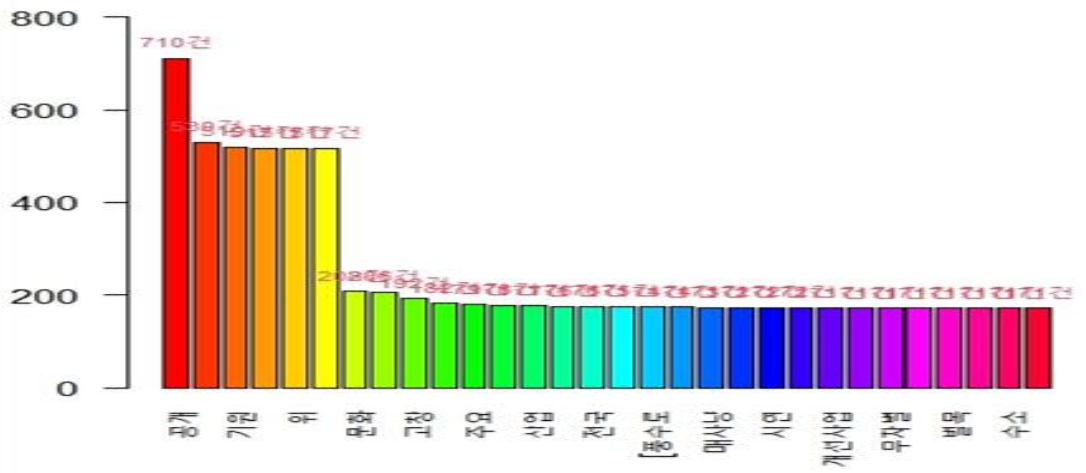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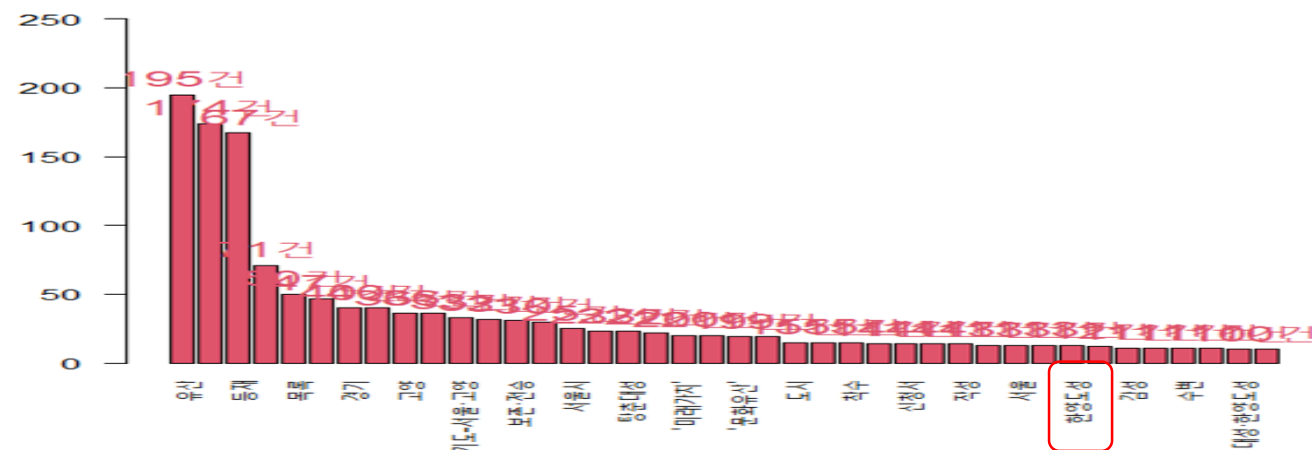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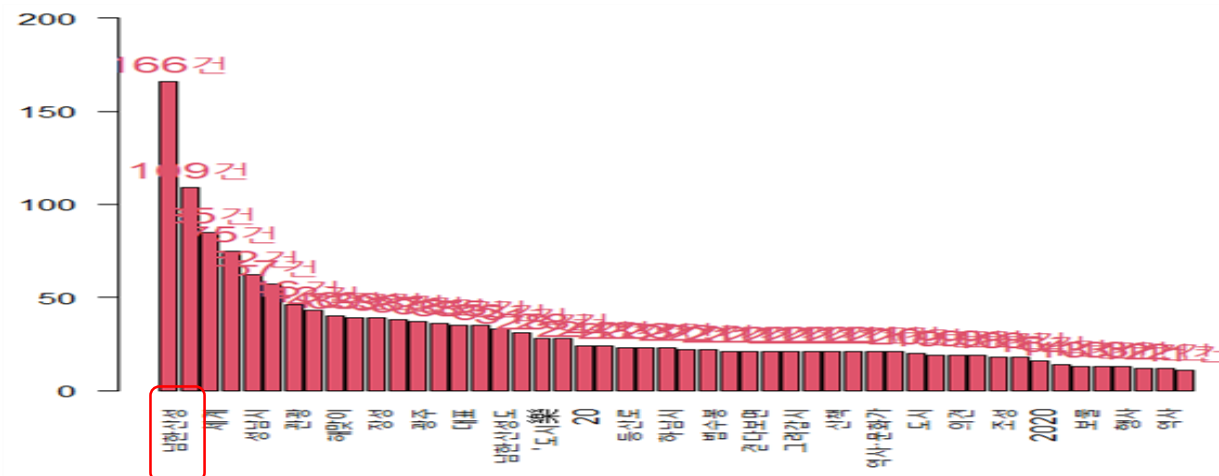
# (전남 향일암,전북\_위도띠뱃놀이)

전남 향일암



전북\_위도띠뱃놀이







# 경북이산서원(경북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에 있었던 조선전기 이황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 1573년(선조 6)에 지방유림의 공의(公議)로 이황(李滉)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574년에 '이산(伊山)'이라 사액되어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 그 뒤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어 8칸의 이산서당만 남아 있다가 1996년 복원되었다. 이산서당은 유림의 회합 및 학생들의 강학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 참고문헌  
『전고대방(典故大方)』  
『경상북도사』(경상북도, 1983)



# 경남\_안곡산성(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 회산리 산247 번지)



- 안곡산성(安谷山城)은 칠원산성(漆原山城)과 연계하여 창원, 마산 방면에서 가야읍으로 진입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아라가야에 의하여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안곡산성(安谷山城)은 칠원산성(漆原山城)과 연계하여 창원, 마산 방면에서 가야읍으로 진입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아라가야에 의하여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성이지만 동 시기에 축조되었는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 안곡산 정선부를 두르며,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식 산성이다.
- 규모는 내성이 540m, 외성이 700m이며, 내성과 외성을 합한 규모는 1,240m 정도이다.
- 성벽은 내부의 성벽에서 동쪽으로 약 160m 지점에서 확인되며, 평면 형태는 굴곡을 이루는 부정형이다. 외부의 성벽은 동벽 중앙의 약 30m 정도에서만 확인된다.
- 부속 시설로 봉수대와 건물 터가 확인되었으나 산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산성 내에서 채집된 유물은 토기편과 기와편 등이며, 시기적으로는 조선 시대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 중반 정도로



# 전남 향일암(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종무소)



- 향일암은 지은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숙종 39년(1713)부터 숙종 41년(1715)까지 인목대사가 지금 있는 자리에 다시 지어 '향일암'이라 하였다. 현재 전하는 건물은 모두 1986년에 다시 지은 것들이다. 절 경내에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관음전, 칠성각, 취성루, 요사채 등이 있다.
- 대웅전 규모는 앞면 3칸·옆면 2칸으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또한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는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이다. 관음전의 규모는 앞면 3칸·옆면 1칸으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 비록 최근에 고쳐 지은 절이긴 하지만 섬 지역에까지 전파된 불교문화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 전북\_위도띠뺏놀이(전북 부안군 위도면 치도리 259)



- 위도띠뺏놀이는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굿으로, 부안군 위도면 대리 마을에서 매년 1월초에 열린다. 띠뺏놀이는 바닷가에서 용왕굿을 할 때 띠배를 띄워 보내기 때문에 띠뺏놀이라 부르게 되었고, 소원을 빌기 위해 세운 집인 원당에서 굿을 하기 때문에 원당제라고도 한다.
- 띠배는 띠풀과 짚, 싸리나무 등을 함께 엮어 길이 3m, 폭 2m 정도의 크기로 만드는데 안에는 각종 제물과 함께 7개의 허수아비, 돛대, 닻을 만들어 달아 배형태를 갖춘다. 놀이는 수호신을 모신 원당에 올라가 제물을 차리고 굿을 한 후 마을로 내려와 마을의 산을 돌고 바닷가에서 용왕굿을 함으로써, 굿의 공간이 산과 마을, 바다로 이어진다. 굿은 집안 대대로 내려온 무당이 하며, 성주굿, 산신굿, 손님굿, 지신굿, 서낭굿 1(원당·본당서낭), 서낭굿 2(애기씨서낭), 서낭굿 3(장군서낭), 깃굿, 문지기굿으로 진행된다.
- 뺏노래와 술, 춤이 함께 하는 마을의 향토축제로 고기를 많이 잡고 안전을 기원하는 어민들의



# 경기\_남한산성\_수어장대



- 남한산성에서 수어청의 장수(將帥)가 군사를 지휘하던 군사시설이다. 2021년 12월 27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 장대라고도 불렸으며, 남한산성의 서쪽 주봉인 청량산 정상에 자리하여 성의 안쪽과 바깥쪽을 굽어볼 수 있는 관측소의 역할을 하였다. 수어장대는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을 개축할 때 함께 건립되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후금의 군사적 압박, [이괄의 난](#)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 이에 조정은 왕실의 보전과 한성의 수비를 위한 보장처(保障處: 전쟁 시 임금과 조정이 대피하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한성과 가깝고 방어요새로 적합한 남한산성을 왕실의 보장처로 삼았다.
- 18세기 중엽에 이르면서 남한산성의 5개의 장대 모두 붕괴되어 터만 남게 되었고, 이후 1751년([영조](#) 27) [유수](#) 이기진이 왕명으로 이충누각으로 증축하고 안쪽에는 '무망루(無忘樓)', 바깥쪽에는 '수어장대(守禦將臺)' 라는 편액을 내걸었다. 이후 1896년([고종](#) 1)에 유수 박기수에 의해 현재의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 남한산성 수어장대는 17세기 조선의 국내외적인 불안한 상황에서 이에대한 대응으로 세워진 군사시설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내에서 연무관과 함께 대표적인 군사 건축물로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남한산성의 5개의 장대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대로서 희소 가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21년 12월 27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 한양도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조선전기 한양 방위를 위해 축조한 성곽. 도성. 사적.
- 서울 한양도성은 서울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조선시대의 도성(都城)으로, 도성의 둘레는 약 18km이다. 이곳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산1~3번지 일대로, 남대문과 동대문 등의 성문과 암문(暗門), 수문(水門), 여장(女牆), 옹성(甕城) 등에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다. 1963년 1월 21일에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청에서 관리해오고 있다.
- 조선 건국 초에 태조는 한양 천도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궁궐과 종묘를 먼저 지은 다음, 1395년(태조 4) 9월 도성축조도감(都城築造都監)을 설치하고 정도전(鄭道傳)에게 명하여 성터를 측정, 조사하게 하였다. 정도전은 백악(白岳)을 비롯하여 인왕(仁旺), 목멱(木覓), 낙산(駱山)에 올라 실측하여 사산(四山)을 연결하는 5만 9500척의 성터를 결정하였다.
- 1915년 일제는 근대도시로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경성시구역개수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 성문과 성벽을 무너뜨렸다. 그 결과 현재 삼청동과 장충동 일대에만 성벽이 남아 있고, 문도 남대문·동대문·동북문·홍예문뿐이다. 광복 후 1963년에 인왕산 방면과 북악산의 석축을 보수하였으며, 1972년과 1976년에 부분보수와 개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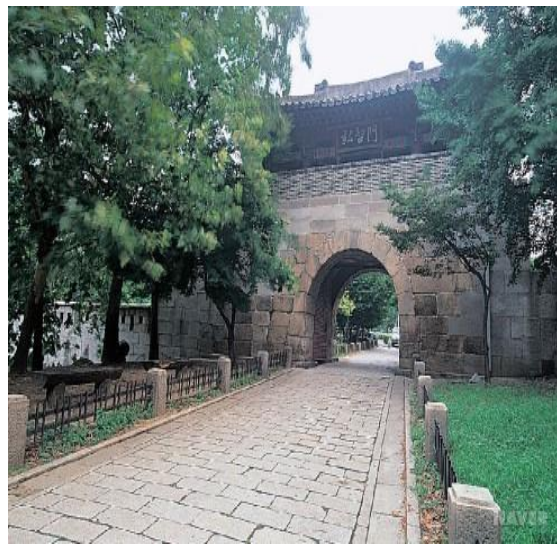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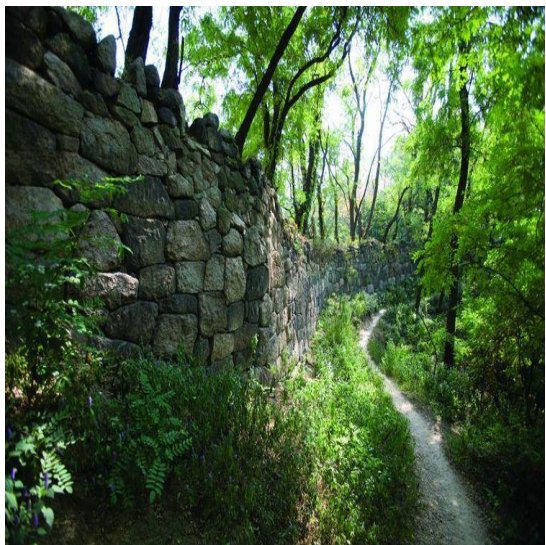
# 북한산성



- 북한산 백운대, 보현봉, 문수봉, 나월봉, 의상봉, 원효봉 등을 연결하여 쌓은 산성으로, 규모는 길이 12.7km이며 내부 면적은 6.2km<sup>2</sup> 정도로, 여의도 4.5km<sup>2</sup> (136만평) 보다 크다.
- 이렇게 크기 때문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우이동, 종로구 구기동, 성북구 정릉동에 걸쳐있으며, 남쪽과 동쪽 성벽이 경기도와 서울을 나누는 기점이 된다.
- 분명 성은 고양시와 서울시에 걸쳐있는데 안내판 사업도 그렇고 두 지자체간 협의되어 진행된 사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지어 주도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다.
- 이는 북한산이 수도권에서 유일한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정도의 명승이며 고양시 소재라고 볼 수 있으나 주된 진입로가 서울에 위치하고, 탐방객도 600만을 넘겨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인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 이런 이유로 성곽과 시설물에 대한 서울시 제작 안내문에는 소재지 소개에 고양시가 쏙 빠져있었다.
- 지금은 서로 협력관계라는데, 사실 말로만 그렇다. 여전히 고양시와 서울시는 서로 으르렁대면서 북한산성의 개발권을 두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양시와 서울시 경계선에 있는 북한산성 부분은



# 탕춘대성



- 탕춘대성(蕩春臺城)은 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성으로, 창의문 서쪽에서 시작하여 북쪽을 향해 능선을 따라 내려가다가 사천을 건너 북한산 서남쪽의 비봉 아래까지 이르는 길이 약 4km에 달하는 산성이다. 탕춘대성이라 부르는 까닭은 현재의 세검정 동쪽으로 100m쯤 되는 산봉우리에 탕춘대(蕩春臺)가 있었기 때문이다. 달리 도성의 서쪽에 있다고 하여 서성(西城)이라고도 하였다.
- 서울 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보조성으로 숙종 때 건립, 완공되었다.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성벽은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숲에 묻혀 잘 보이지 않는다.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은 홍지문이다.



## 4. 기대효과

- .지역(팔도)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발미 제공
- .지역문화 홍보를 통해 지역문화 인식 증가
- .문화 유적에 대한 중요성 인지
- .세계문화 보존에 대한 한국 전통문화 입지의 타당성 제공
- .마땅한 여행지 추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Fly High

from  
info.singident.com

자료준비:이경철  
PPT작성:이건용

